

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미래창조 금융
	보도	배포시부터	배포	• 따뜻한 금융
			2017.1.18.(수)	• 튼튼한 금융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	담 당 자	이 인 옥 서기관 (02-2100-2831) 나 혜 영 사무관 (02-2100-2832)

제 목 : 2017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발표

- 「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」을 확정
-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'상시 금융개혁 체제' 구축

1. 회의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2017.1.18.(수) “2017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(이하 금발심) 전체회의”를 개최하여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금발심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 금융개혁 체제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

■ 일시/장소: '17.1.18(수) 08:00 ~ 10:00,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

■ 주요 참석자

- 금융위원장
-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
-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,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

■ 논의안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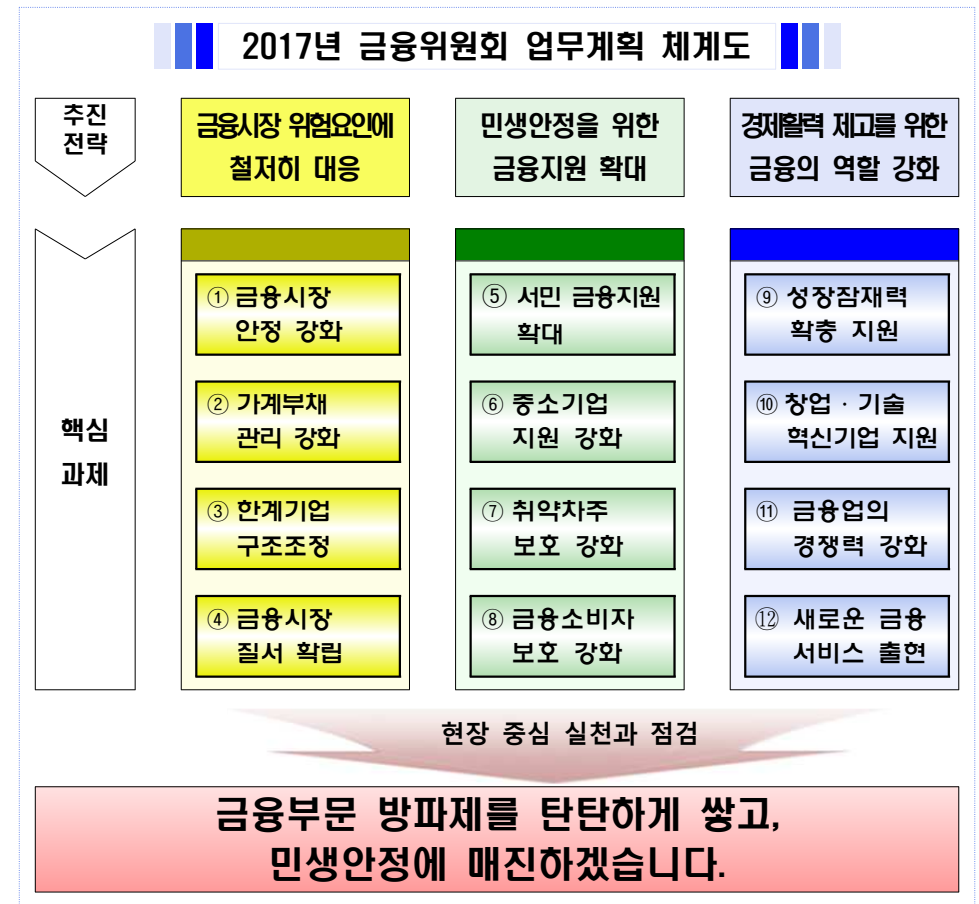
- ①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
- ② 상시 금융개혁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

2.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

- 금융위원회는 대내외 금융 여건, 금발심 전체회의 논의결과 등을 반영하여

- 2017년에는 ①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(추진전략Ⅰ)하는 가운데, ②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(추진전략Ⅱ)하고, ③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(추진전략Ⅲ)한다는 3대 추진전략을 확정

➔ 금융위원회는 「3대 추진전략, 12대 핵심과제」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



3. 주요 참석자 발언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7년에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
 - 그 어느 해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음
- 이에 따라, 2017년 금융위원회는 (1)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, (2)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, (3)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라는 '3대 추진전략'하에 '12개 핵심과제'를 선정하여
 - 금융부문 방과제를 탄탄하게 쌓고, 민생 안정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음
- 한편, 금발심은 1986년부터 3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하였음
 - 특히, 작년에는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서 '금융개혁추진위원회'를 설치하여 많은 금융개혁 과제들을 발굴·심의하였다고 하였음
 - 이처럼 1·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미 발굴된 과제들의 착근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하였음
-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발심을 중심으로 하는 '상시 금융개혁 체제'를 통해 기존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, 신규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였음
 - ① 금융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여 인터넷전문은행, 거래소 구조개편 등 개혁과제가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

- ② 1·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발굴된 106개 세부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**옴부즈만, 현장점검반** 활동을 통해 기존 과제의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
 - 월별로 점검 테마를 선정하여 소관부서와 현장점검반이 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, 옴부즈만을 거쳐 금발심에 이행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
 - 현장방문시 발굴된 개혁 관련 애로 사항은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하고,
 - 현장에서 제기된 개혁 관련 건의사항 중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'폐자부활전' 제도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였음
- ③ 금발심 위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였음
 - 특히,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현장 밀착형 과제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강조하였음
 -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의 최종 수혜자인 일반 기업과 금융소비자를 월 1회 방문하고,
 - 장애인, 외국인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까지 소통 통로를 확대하여 금융개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였음
-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향후 금융개혁이 금발심을 통해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금발심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며,
 - 앞으로도 금발심 위원들이 금융개혁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

- **장범식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2017년에는 미국 금리인상, 저성장의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, 가계부채,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등**
 - 우리 금융산업을 둘러싼 **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** 된다고 언급하였음
- 이처럼 **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금융시장의 환경을 철저히 분석** 하고 **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,**
 - 2017년 금발심은 금융위원회가 **업무계획**에서 제시한 **‘3대 추진전략’**과 **‘12개 핵심과제’**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함께 **향후 우리 금융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적극 모색**하겠다고 하였음
- 특히, 앞으로의 금발심은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·심의 역할 뿐만 아니라, **금융개혁의 상시 추진체계**로서 금융업계의 **경쟁과 혁신**을 이끄는 **논의의 장**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
 - **상시 금융개혁 체계** 하에서는 금발심에서 개혁과제를 심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
 - 금발심 **분과별로** 위원들이 **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** 들음으로써 **정책 수립단계부터** 위원들의 **고견을 적극 반영**토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음
- **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만큼 홍보도 중요하다고** 하였음
 - 위원들 한분 한분이 **‘금융개혁의 전도사’**로서 금융개혁 관련 정책들이 **시장에 정확히 전달**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였음

※ 별첨 :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